

## 지상파 MMS, 수면 위로 떠오른다

### 정보격차 해소효과 불구, 유료방송계는 반대



지상파 방송4사(KBS, MBC, SBS, EBS)가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무료 지상파 MMS(멀티 모드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4사 사장들은 지난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상파 방송사 「시청자 서비스 강화」 공동사업추진 협약식'을 개최해 위와 같이 발표하고, 2011년부터 DTV KOREA(회장 김인규) 내에 별도 사업추진TF를 구성해서 세부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신환경개선 사업은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공동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발표된 내용 중에서는 특히, 지난 몇 년간 표류했던 지상파 MMS 공동추진 계획이 각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MMS란, 한 방송사의 주파수 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HD/SD방송 채널, 부가서비스 등)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미 다채널 시대로 진

입한 방송환경에 맞게 지상파 방송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기술이다. 무료 지상파 MMS가 실시되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서 발생가능한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는 한편, 보편적 문화접근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상파 MMS 추진 소식에 유료방송 업계는 지나친 경계의 눈빛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MMS를 언급한 것을 두고 여러 매체들이 '지상파-방통위 사전교감', '지상파 특혜'로 몰아세우는가 하면,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실현하는 효과는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유료방송의 광고 파이에 대한 걱정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 MMS의 도입 여부 및 운영주체·면허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유료방송업계의 반응에 위축된 듯 오히려 한발 물

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해마다 연말이면 하게 되는 인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만큼 정감 있고 격려가 되는 말은 없는 듯합니다. 전국의 방송기술인 여러분이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여유가 되신다면 바로 이 순간 옆자리에 계신 동료 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10년 방송기술계는 유난히도 다양한 도전을 시도한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HD프로그램 편성비율이 70% 이상으로 의무화되었는가 하면, 지난 10월 중에는 세계 최초로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이 실시됐고, 울진·단양·강진 지역에서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에 이은 스마트TV라는 개념은 세계 방송 산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지며 방송기술인들에게 큰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는 새로운 도전만큼이나 많은 갈등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한해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방송기술인들의 끊임없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경매제를 빼대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올해 6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날치기로 입법된 방송법은 헌법재판소마저 외면하며 끝내 재논의되지 못하고 종편을 허용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합리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계기로 촉발된 지상파 3사간의 중계권 갈등과 수년간 지속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SO 사이의 재송신 분쟁은 시청자의 '채널선택권'과 '보편적 시청권'을 다시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방송의 현실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3DTV·스마트TV·디지털 전환 등 방송기

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의 업무환경을 보다 편리하고 보람있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보다 고품질의 방송을 편리하고 다양한 경로로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도 양면이 있듯이 변화의 밝은 부분만 보는 것은 합리적인 대처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3DTV·지상파MMS 추진과정에서도 확인되듯이,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보다 이윤추구와 산업논리로 무장한 가전사와 유료방송의 입장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송 완전종료 시점은 2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디지털 전환 자원과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 합니다. 오랫동안 확고한 우위를 고수했던 무료 보편적 지상파 방송은 어느새 편리한 접근성과 전문적인 채널로 무장한 유료방송에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TV라는 새로운 개념은 기존의 방송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 마냥 거센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미래는 분야를 막론하고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올 한해 등장한 수많은 도전과 갈등들은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방송기술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방송기술계는 방송과 통신 및 IT의 융합이라는 무한경쟁시대의 한 가운데 와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시작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덧붙여 '앞으로 좀 더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10년 한 해 방송기술 발전과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드높인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방송기술 종합정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가 제공합니다.

- 연합회소개 인사말, 조직소개, 연혁, 강령 및 회칙, 사업목표/활동보고
- 연합회원마당 성명서, 회원계시판, 주요쟁점사항, 각종행사, 교육사업
- 저널&매거진 방송기술저널, 방송과 기술, 제보 및 원고문의
- 뉴스&이슈 연합회뉴스, 전문지뉴스, 미디어트렌드
- 자료모음 세미나&자료, 현장기술, 차세대 방송기술, 각종자료, 방통위 정책, 관계법령
- 방송장비 장비공급업체, 최신방송장비, 업체동향



사설

성큼 다가온 DTV전환,  
더딘 걸음을 재촉해야할 때

곧 다가올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2010년 한해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여러 논의들이 남긴 성과들을 통해 앞으로 2년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겠다.

지난 9~11월에 걸쳐 울산·단양·강진 지역에서는 아날로그TV 시범종료 사업이 진행됐다. 연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사업을 주관한 DTV Korea(회장 김인규)는 특히 '디지털전환을 실시한 이후에도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수신점을 확보하기 어려우 소출력 중계기가 절실했고, 지역별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 특성에 적합한 안테나를 사용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일부지역에서는 용역을 체결한 외부 설치 업체가 기술 수준이 모자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한다. 디지털 전환의 기술적 지원이 시청자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중심으로 더욱 보완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활한 디지털 전환 추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도 있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케이블SO의 지상파 DTV 무단 재송신은 지상파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을 내놓자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는 막무가내로 "케이블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전면중단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한달여 동안의 신경전 끝에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직접수신 가구가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을 매우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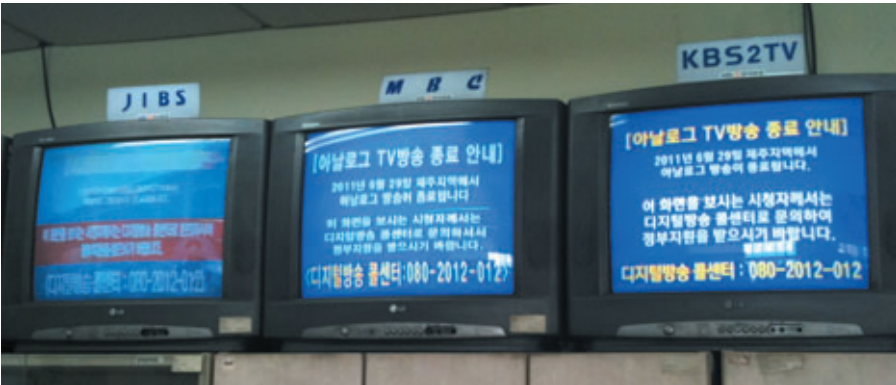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향후 3년간 지상파 4사가 공동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약 1천만 가구에 대해 수신환경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은 늦었지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더불어 기술인연합회가 오랫동안 필요성을 강조한 무료 지상파 MMS(멀티모드 서비스)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고 하니 더욱 기쁘다. 지상파 MMS는 TV전파를 이용해

서 본 채널 이외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디지털시대 시청자를 위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MMS를 '지상파에 대한 특혜' 쯤으로 치부해버리는 유료방송업계의 이윤추구 논리를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잠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큰 사건이 영풍한 곳에서 일어났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저지른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의미하는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617억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200억 이상 삭감되어 가뜩이나 내년도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던 차였다. 그 와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히 증액을 요청한 저소득층 수신환경 지원사업 예산 부분이 이번 날치기 과정에서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통과돼 버렸다. 특정사업을 염두에 둔 집권당이 전체 예산안 통과에만 방점을 둔 채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결과이다. 과연 집권당이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행여 디지털 전환 사업은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영욕을 채우는데만 급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방통위는 부랴부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환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예정됐던 증가액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가 '낮은 디지털 전환율'과 '불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완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우리는 올 한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힘들고 더딘 한걸음을 겨우 내딛었다. 남은 2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단 하루의 낭비·단 한번의 실정(失政)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먹통쇼크(Black Shock : DTV전환 이후 제대로 TV수신을 하지 못해 시청자들이 겪는 혼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한치의 빈틈도 없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방송시장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하면 지상파가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11년, 아날로그 TV방송 ‘가상종료’ 실시



제주도 시범사업 아날로그 TV 방송 가상종료 화면(2010.12.22, 14:00~14:10)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경에 아날로그 방송 종단을 일컫는 ‘가상종료’ 방송이 실시된다. 가상종료 방송은 TV화면에 아날로그 방송 중단 자막을 내보내는 시범방송으로 아날로그 TV를 시청하는 가구에서는 가상종료 시간에 정규 방송을 보지 못하고,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됩니

다’라는 자막만을 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1년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 홍보와 수신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부분을 강화해 시청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디지털 전환 계획은 제작·송출시설 구축과 송신시설의 디지털 전환 등 공급자 측면을 강조해온 부분이 있다”며 “이번 시청자 중심의 시행 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인지를 90% 확보,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등 DTV 보급률 80%, 디지털 TV 방송의 커버리지 94%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해주는 디지털 컨버터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한 보급형 디지털TV를 조달하는 등 본격적인 장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200개 농어촌 마을에 공시청 시설을 수리하고, 13만 세대에 위성수신기를 보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자, 일부 TV수신료 면제 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7만 가구에 DTV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디지털 컨버터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소득이 낮은 시각장애인이나 난청 노인 등에게는 화면해설방송 수신기와 자막방송수신기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보조국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융자지원(220억원)과 관세감면(4%) 등의 지원정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디지털방송 전환은 국가가 주도하면서도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국책사업이므로 대국민 홍보와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DTV 시청, 1시간에 5~15분 휴식해야

3DTV를 시청할 때 1시간마다 5~15분 정도 쉬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체가 참여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 조찬 간담회를 열고,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3D 영상 시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감을 줄이고, 3D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3D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안과·신경과·정신과 등 의료계 전문가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구성해, 3D 영상 안전성 연구로 드맵 수립, 안과·심리학적 임상실험,

해외 의료계 문헌 조사·연구 등을 추진해 왔다.

권고안은 ▲1시간 시청 후 5~15분 정도 휴식을 취할 것 ▲차량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 증상을 느끼는 사람과 동공 간 거리가 짧은 사람은 3DTV를 시청할 때 시각적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시청거리는 3D 디스플레이 화면의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에서 ▲시청각도는 3D 디스플레이 좌우 20도 이내에서 시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권고안은 18~55세 성인 남녀 115명을 대상으로 실제 3D 영상 시청 중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멀미

감수성, 동공 간의 거리에 따른 불편감을 조사·분석해 얻은 결과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문헌에만 기반해 작성된 해외 가이드라인과 달리 이번 권고안은 실제 3D 영상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 및 의료계의 조언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지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번 권고안은 국내 3D 영상 안전성 분야에 뜻 깊은 이정표로서 전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3D 안전성 연구를 확대하여 3D 영상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파연구소  
‘2010 전파연구종합발표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0 전파연구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전파자료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방통 융합 관련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등을 한해 수행된 각종 전파연구 주요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허영태 전파연구소 연구사가 발표한 ‘방송설비 기술기준 및 서비스 환경개선 연구’ 중 DMB 재난경보 서비스 기술기준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상파 DMB 재난경보 서비스는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를 디지털데이터로 전송해 DMB 수신기의 자막·알림·진동 등의 형태로 재난 위험지역,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올해 재난방송의 보안을 위해 지상파 DMB 재난경보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안을 마련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TV나 라디오를 통한 재난방송은 야외 활동이나 정전 중에는 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상파 DMB는 유선방송의 한계를 보완하고 동시에 방송의 신뢰도를 갖춘 뉴미디어로서 재난방송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기준 마련을 통해 지상파 DMB 단말기의 재난경보 규격을 통일해 수신기 오작동이나 재난경보 채널이 사라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기술기준을 지켜 실질적인 재난경보 서비스로 지상파 DMB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0년 디지털전환 정책을 평가한다

지난 1년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방송학회는 한국방송협회와 DTV Korea의 후원으로 ‘지상파 방송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인 ‘지상파 디지털 전환 정책 과정의 평가’ 발제를 맡은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김경환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언론사들의 평가지만 시범사업지가 3곳이었음에도 차별화된 시범사업이 전개되지 않아 의미가 퇴색됐다”고 평가하고 “본사업을 전개할 때는 반드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및 지원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고 7면)

제2주제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지원정책의 방향’을 발제한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유석연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직접적인 주체인 지상파 방송사가 시장경쟁의 격화와 경영악화로 인해서 전환에 소요되는 자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의 정체성 확보와 직접수신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채널 서비스 플랫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HTV 공동추진 조인식



지상파 방송4사가 공동으로 OHTV (Open Hybrid TV, 일명 '지상파형 스마트TV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상파 방송4사가 공동으로 OHTV (Open Hybrid TV, 일명 '지상파형 스마트TV 서비스')를 추진한다.

한국방송협회(회장 김인규)는 지난 21일 KBS, MBC, SBS, EBS, 차세대방송표준포럼과 공동으로 'OHTV 공동추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차세대방송표준포럼은 OHTV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4사(KBS, MBC, SBS, EBS)와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하이브리드TV(OHTV)

분과를 지난 2008년 11월에 신설한 바 있다.

KBS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 김선권 본부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강력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실시간 TV방송뿐만 아니라 널리 보급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VOD와 다양한 정보전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OHTV는 MMS의 양방향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진화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동정

- MBC방송기술인협회 송년회 참석 (12.15)
- KBS방송기술인협회 송년회 참석 (12.16)
- CBS방송기술인협회 송년회 참석 (12.17)
- 한국촬영감독연합회 시상식 참석 (12.17)
- 연합회 사무처 송년회 (12.22)

2010 만평 다시보기

박성규



제35화 방송기술저널 100호를 발행하며...



제37화 700MHz대역 활용 문어에게 물어봐



제43화 TV + PC = 스마트TV



제46화 빠른 방송, 우리가 만든다!



제47화 서로 다른 연말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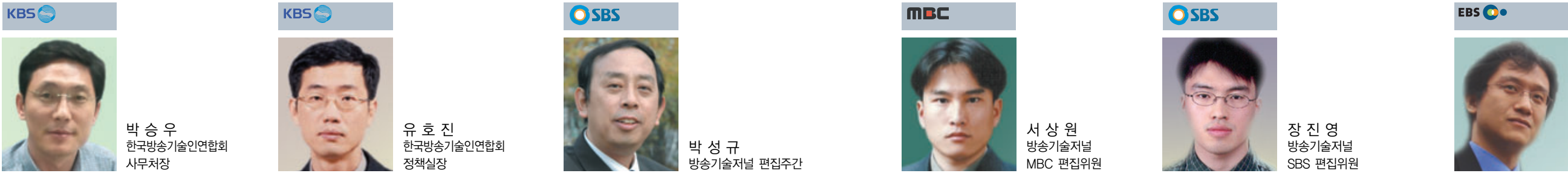
방송기술저널	
창간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양창근	
편집주간   박성규	
편집위원   김건희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윤현철	
취재기자   백선하 강민수	
기획실   강동균	
인쇄인   (주)동진프린텍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02-3219-5635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 광고문의

02-3219-5635



# 2010년 한해를 마감하며...



올 한해 3DTV와 디지털전환, HD 프로그램 및 디지털워크 플로우 제작 등 한국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디어빅뱅의 뜨거운 감자인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이 연내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가 선정되는 사업자 수조차 정해놓지 않아 몇 개의 사업자가 선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종편이 내년 말쯤 방송송출 시작하게 되면 방송시장 구도는 다시 한번 크게 변할 듯 합니다.

또한, 내년도는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1년을 남겨둔 시점으로 디지털 전환이 본격 추진되고,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의 정책방안 마련과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방송장비 산업이 더욱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아날로그TV 주파수 대역의 활용에 대한 발전적인 논쟁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전략서비스차원에서 고화질 3DTV 상용기반 확보와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TV 광고시스템 기술개발과 UDTV, 스마트TV 핵심기술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콘텐츠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방송기술 인력육성 차원에서 전문맞춤교육이 시행됩니다.

저희 연합회는 올 하반기에 방송통신기술 환경변화를 고려해 연합회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방송환경 기술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송기술인들의 위상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책기반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올 1월경에는 연합회 홈페이지를 소셜 네트워크와 모바일 기능을 보강하여 새롭게 공개합니다. 살아있는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서 2011년의 방송통신환경변화는 방송기술인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연합회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0년이 왔나 싶더니 어느새 벌써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해 세우셨던 계획들은 모두 잘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올 한해 방송기술계가 겪은 변화의 물결은 이제 굳이 글로 써놓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자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부침을 겪었던 한해라고 소회할 수 있겠습니다. 3DTV 처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의 기술들이 방송기술인들의 관심을 끌었는가하면, 지상파TV 디지털전환과 수신환경개선은 수년이 지나도 해결책을 찾기 못하다가 연말에 이르러서야 겨우 실마리를 찾은 듯합니다.

올 한해 불거졌던 많은 이슈들에 연합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파수 경매를 빼다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은 6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해진 방송법에 의해 종편채널 선정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여기에 지상파와 케이블SO 간의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은 겉으로만 봉합되었을 뿐, 그 속을 살펴보면 아직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두고 내년을 맞이하는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습니다. 비록 올해는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들이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방송기술인 여러분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합회원 여러분.

토끼는 영리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는 자신의 간을 취하려는 자라의 농간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자신의 몸을 지킬 줄 아는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우화에 나오는 토끼는 조금 다르지요. 자신의 날쏘는 다리만 믿다가 결국 거북이에게 지고마는 어리석은 짐승입니다. 방송기술인은 당연히 전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연합회는 내년 한해도 슬기롭고 날쏘게 뛰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년'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바깥은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올 한해 다사다난했던 방송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논쟁거리들이 조용히 흰 눈 속에 덮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신묘년' 새해의 태양이 떠오르면,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환경의 커다란 변화와 새로 생겨난 종합편성채널 등 후발업체의 위협 등 수많은 이슈가 쌓인 눈을 녹이고 세상에 모습을 내비칠 것입니다.

언제든 위기가 아닐 때는 없습니다. 특히나 방송기술은 뉴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기술인들은 언제나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뜨거운 열정으로 커다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많고 많은 이슈들로 혼란스러웠던 지난 한해가 위기였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내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송기술의 부흥을 이뤄봅시다.

이제 필자는 2005년과 2006년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 동안 노력과 열정으로 정들었던 '방송기술저널'의 편집주간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떠납니다. 'DTV 전환특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거쳐, 좀 더 폭 넓은 사회적 이슈와 의견과 뉴스를 다루는 역할에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탄생한 '방송기술저널'을 113호까지 함께 하다 떠나려니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그린 [만평]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못 그리는 그림 실력으로 지면에 활기를 넣고 사회를 비평하자니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방송기술저널'을 소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지켜주시던 선배와 후배 그리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직도 남아있는 큰 짐들을 후임 편집주간님과 편집부에 남기고 그만 일어서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지상파는 지상파 방송답게 무선으로 시청자의 단말까지 끝까지 서비스하겠다는 정신으로 주파수를 지켜나가며 전송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부디 멋진 저널로 다시 태어나고 세상을 밝히는 불빛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후배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한해가 또 저물어갑니다. 신년의 새로운 다짐으로 힘차게 달려왔지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연합회원분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급변하는 방송환경의 변화를 거뜬히 이겨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다사다난한 한해가 될 거라 예상됩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거라 생각되지만 혼자서만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기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인생이 힘에 부칠 때는 스스로 자신을 챙기고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소중하고 벗, 이웃, 동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4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용기(勇氣)'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기(人氣)'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온기(溫氣)'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버릴 수 있는 '포기(抛棄)'

내 진심이 상대방의 가슴에 전달되어야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때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따뜻한 만남을 나누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1년 신묘년(辛卯年) 가슴으로 전해지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희망찬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인년 호랑이의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맘 때 쯤이면 연합회원들 모두 각종 연말 모임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다가올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심 것 같은데요. 연말이 되면 손에 일도 잘 잡히질 않고 약간 들뜬 기분이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래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그 어느해보다 와닿았던 경인년 한해를 보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생활의 일부로 정착한 시기입니다.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통신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은 보급대수가 700만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한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역시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문이나 방송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유명 인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이 조그마한 기기가 가진 잠재력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뉴미디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개방성'과 '실시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방송'이라는 매체가 갖지 못한 부분입니다. '방송'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체되지 않고 '방송'만의 장점을 살리면서 뉴미디어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기술'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제 곧 2011년, 토끼의 해입니다. 내년도 올해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웃고 울게 하겠지만,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낙관해봅니다. 무엇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연합회원님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사회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저런 화두가 많이 던져지면서, 변화의 물결이 파도로 커져 우리를 덮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었다는 스마트폰, 이미 많은 방송사들이 발빠르게 대응하여 모바일 기기를 위한 방송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상파형 스마트TV 서비스인 OHTV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작 환경에서는 디지털 파일기반 프로그램 제작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3DTV라는 새로운 이슈는 수많은 제작 기술자들을 발잡을 못 이루게 했습니다. 변화해야 할 수 있다는 우리 시대의 진리는 이제 우리 방송기술인에게 일상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름대로 아쉬움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해인들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다음 해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를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웬지 여럿이 모여 한 잔 나누기도 어색하게 된 듯한 기분입니다. 수많은 위기감과 이에 대한 끝끝하지 않은 마무리가 희망보다는 내일의 격정으로 이어질 것 같은 태세입니다.

그래도 그런 고민들은 잠시 내려놓고 각자의 삶과 그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겠습니다. 방송기술은 콘텐츠 예술과 연결되기에, 우리 방송기술인들에게 세상과, 땅과, 하늘과 대화하는 시간은 지극히 필요합니다. 새해 신묘(辛卯)년에는 신묘(新妙)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테니 이를 위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남은 며칠, 오늘의 격정이 내일의 희망이 되길 소망하며 미소를 지으며 건배합니다.

## 디지털방송기술 총람 2008



디지털  
방송기술  
총람  
저자

- 이창형  
KBS 예능기술팀 차장
- 박성규  
SBS NQC부장, 정보통신기술사
- 김상철  
MBC 중계기술국 차장
- 박창목  
KBS 디지털인프라팀 차장
- 김영석  
MBC 모바일기술부 차장

Chapter 1. 디지털방송 개요  
1.1 텔레비전의 기초  
1.2 디지털 방송 기초기술  
1.3 디지털 TV  
Chapter 2. 지상파방송 전송방식  
2.1 ATSC 전송방식  
2.2 DVB-T 전송방식  
2.3 ISDB-T 전송방식  
2.4 DMB-T/H 전송방식(중국방식)  
Chapter 3. 위성방송 전송방식  
3.1 위성 중계  
3.2 통신위성  
3.3 지역위성

3.4 무궁화 위성  
3.5 디지털 위성방송  
3.6 위성이동중계 SNG  
3.7 DVB-S2  
3.8 위성 DMB  
Chapter 4. 이동수신방송 전송방식  
4.1 지상파 DMB(T-DMB)  
4.2 위성 DMB(S-DMB)  
4.3 DVB-H  
4.4 MediaFLO  
4.5 ONE SEG Mobile  
4.6 HSDPA (MBMS)  
4.7 WiBro

Chapter 5. 디지털라디오 전송방식  
5.1 디지털라디오의 출현과 동향  
5.2 Analog 라디오 방식별 비교  
5.3 디지털라디오 전송방식  
Chapter 6. 데이터방송 방식 비교  
6.1 ACAP  
6.2 OCAP  
6.3 DVB MHP  
6.4 DVB MHP  
Chapter 7. HD중계 전송 기술  
7.1 HD중계 방송  
7.2 중계방송의 구분  
7.3 중계 전송망  
7.4 비압축 통합 광전송망

7.5 SNG 전송망  
7.6 방송용 전용회선  
7.7 대량행사 중계 현장 전송망  
Chapter 8. DTV 응용서비스  
8.1 MMS(Multi Mode Service)  
8.2 IDTT  
8.3 SDDS  
Chapter 9. HDTV 영상 제작기술  
9.1 HDTV 기술적 특징  
9.2 HDTV 영상 제작 기술  
9.3 HD 영상 제작 기법  
9.4 DVE 제작 기술  
부록 HD 방송 포맷/방송기술 약어

· 30,000원  
· 주문 : kobeta@kobeta.com  
· 문의 : 커뮤니케이션북스  
02-3700-1275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02-3219-5635



# 방송기술저널이 뽑은 2010 방송계 10대 뉴스

1

### 3DTV 방송 실시

영화 '아바타'의 감동을 안방으로!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가 3D영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잔뜩 부풀려놓았다. 그러자 2010년 들어서는 영화계는 물론 지상파·위성·케이블 방송사들까지 모두 3D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다. 남아공 월드컵 특수를 노린 가전사들은 일반영상의 절반 해상도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Side by Side 방식의 수상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방송사들은 '올려져 자막기' 식으로 관객의 송신소의 ch.66번을 통해 Side by Side의 3DTV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는 Dual Stream 방식의 3DTV를 국제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G20 개회를 앞둔 10월 29일 '고화질 3DTV'라는 이름으로 실험방송을 시작했다.



2

### 지상파TV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추진

울진·강진·단양, 전국최초 ASO

DTV Korea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종료를 대비해 발생가 등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할 목적으로 울진·강진·단양에서 디지털전환 시범사업(ASO : Analog Switch Off)을 실시했다. 각 시범사업 지역에는 우선 디지털전환 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디지털전환 사업을 홍보하고, 디지털방송 수신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기술적 취약계층을 파악해서 디지털방송 수상기나 셋톱박스 구입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은 남은 2년간의 디지털전환 준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있다.



3

### 지상파-케이블SO 재송신 분쟁

'보편적 시청권'이란 무엇인가?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케이블SO들이 지상파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자, 케이블TV SO들은 1천만 지상파TV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전면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도박을 시작했다(9월 13일).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을 받고 있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이 넘도록 중재하지 못한 결과였다. 결국 이 사태는 한달 여가 지난 후에도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한 채 일단락됐지만, 양측의 갈등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4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

스마트 미디어시대가 왔다

2009년 12월 아이폰3Gs가 국내에 출시된 후, 지난 한해 동안의 화두는 온통 '스마트'였다.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에게 알다시피 스마트폰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사내·외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중에서도 트위터·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스마트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됐다. 이후 구글이 '스마트TV'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TV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려는가 싶더니, 미국 내 주요 방송사가 콘텐츠 제휴에 난색을 표하면서 폭풍은 잦아드는 듯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방송사와 가전사들이 각각 OHTV, 스마트TV 기술을 내놓는 등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이어 삼성과 애플이 각각 스마트패드를 출시하며 스마트미디어 붐을 이어갈 전망이다.



5

###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

과정은 불법이나 결과는 유효하다?

2009년 방송법 날치기 입법, 헌법재판소 1차 권한쟁의 부작위 판결, 2010년 종합편성채널 기본계획 수립, 현재 2차 권한쟁의 기각, 종편채널 운영 계획 접수, 그리고 심사까지... 종합편성채널을 만들려는 그들의 끈질긴 노력은 헌법조차 무력하게 만들었다. '입법과정이 불법이기에 법안자체가 불법'이라는 상식적인 논리조차 헌법재판소의 교묘한 말장난 속에 외면당했다. 그 와중에 신문사장을 독재하던 조·중·동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사 중인 대광기업 등이 '어른독과점을 해소하겠다'고 종편 운영계획서를 제출했고, 오는 30일 심사결과 발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놀라움, 반가움, 아쉬움, 분노  
유난히 방송계의 이슈가 많았던 2010년 한해, 방송기술저널이 지난 한해를 달궜던 방송계 뉴스들을 선정했다.

6

월드컵 중계권 분쟁  
중계권을 누가 자בל라니?

남아공에서 부부젤라가 축구장을 시끄럽게 만들던 때, 국내에서는 월드컵을 단독중계하던 SBS와 중계권을 놓친 KBS·MBC가 방송계 안팎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다. KBS와 MBC는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무시한 채 월드컵 공동중계 협약을 어겼으며 소송을 걸었고, 방통위는 결국 SBS에 19억7천만 원이라는 국내방송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태가 있는 후 지상파 방송3사는 방송협회 내에 '스포츠 중계 방송 발전협의회'를 두기로 합의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SBS에 대한 형사고소도 취하였다.



7

주파수 경매제 실시  
공익논리를 이긴 산업논리

6월의 마지막 주, 주파수 경매제를 포함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결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되던 698~806MHz 대역이 국가에 반납될 시점이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다.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이 경매를 통해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 기업이 부담했던 값비싼 경매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될지 모른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변의 이런 우려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산업논리, 시장논리'에 매몰되어 정책을 결정했다. 그로 인해 미래의 지상파 방송은 3DTV·UDTV·MMS 등을 구현하기 위한 타전을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



8

KBS·MBC 총파업  
'언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MBC노조는 '청와대에서 포인트를 까인'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4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39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MB의 언론독재 출신' 김인규 사장에게 반발하며 7월 1일부터 한달간 총파업 투쟁을 펼쳤다. 그 밖에도 시사교보프로그램의 연이은 폐지, 천안함 관련 의혹에 대한 입막음, PD수첩과 추적60분의 '4대강' 편 불방사태, 무더기 해고·징계·인사보복까지... 지난 한해에 적년과 같이 공정방송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

수신료 인상 논란  
1회성 인상보다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30년간 동결된 수신료, 이번엔 꼭 인상해야 한다", "공정방송이 담보 안되니 한 톨도 더 줄 수 없다", 언제나 수신료 인상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반박되는 논쟁이다. 올해도 역시 '공정방송' 논란은 정치적인 논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수신료 인상' 논리도 합리적인 설득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 와중에 선진국의 공영방송 수신료 체계와 같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지는 목소리는 또 다시 침묵의 나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사회는 언제쯤 기쁜 마음으로 수신료를 주고 받게 될까?



10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3돌  
KOBA 20회 · 저널 100호 달성

23개 회원과 4500 회원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연합회는 지난 한해도 무럭무럭 성장했다. 91년 시작한 국제 방송·음향·조명장비 전시회(KOBA)는 올해로 20회를 맞이했고, 2002년 9월 방송기술인연합회로 출발한 방송기술저널은 올해 지령 100호를 돌파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층 더 발전해가는 국내외 방송기술 분야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디지털 전환·국산 방송장비 고도화 등 방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앞장서기 위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 한 해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내년에도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인터뷰

KBS TV기술국 시스템팀장 이창형

## 방송기술정책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한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호에는 19·20대 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대상을 수상한 KBS 이창형 팀장을 만나본다.



### ■ 방송기술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큰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러움이 앞서네요. 저 개인에 대한 상이라기 보다는 연합회 활동에 대하여 주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함께 활동했던 협회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각 사 협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사하던 해인 1987년에 협회와 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게다가 연합회 출범 20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기에 연합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위한 큰 동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 ■ 연합회장 당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연합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지상파 방송의 미래를 위해 각 방송사가 연합하여 정책당국이 올바른 방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 DTV전송방식 문제도 정책당국의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각사 협회장님들과 정책회의를 지속하면서 각 방송사 사장님들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디지털 전환, 주파수 재배치, MMS 및 지상파 규제 등에 관한 의견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지요. 이후 이를 발전시켜 방송위원회 산하 최초 법법인 미래방송연구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합회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재정이 안정되어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디지털방송기술총람'을 기획하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기술 분야의 변화도 빨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DTV전송방식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기술 전 분야에 대하여 공부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와 함께 연합회 기술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고자 각사 협회장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지요. 자료를 모아놓고 보니 책으로 내면 좋겠다는 판단이 생기더군요. 그게 '디지털방송기술총람'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됐습니다. 부족한 자료로 출판해 놓고 보니 아쉬움이 많았지만 다행히 반응도 좋았고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초판을 내면서 누락된 분야가 IT관련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3DTV 및 스마트TV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 ■ 지상파 MMS는 당연한 의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시청자에 대

한 다채널 서비스는 지상파방송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시청자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무료 서비스입니다. 화질과 음질의 향상은 물론이고 MMS가 실현되어야 진정한 디지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40% 이상의 시청자들이 불만족한 콘텐츠가 없어서 DTV구매를 주저한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구매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여러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MMS는 이런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 ■ 디지털 전환 남은 2년간의 과제

2012년 12월 31일이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데 아직 디지털 전환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율도 미흡하고 DTV 수상이 보급도 50%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다양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질과 음질의 개선으로는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MMS서비스가 빨리 도입된다면 DTV전환율도 가속도가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지털방송 수신환경도 미흡합니다. 특히 DTVR이나 공시정 시설들이 빨리 설치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DTV수신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가전매장에서 DTV를 구매할 경우 DTV안테나를 무료로 보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테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케이블에 가입하여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 기술변화는 빠르고, 정책수립은 더디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지상파방송의 미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 빅뱅의 시기에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능력과 잘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한 다면 충분히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쿠폰을 나누어 주어 디지털 방송 수신용 셋업박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이후에 주파수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3DTV, UDTV 및 프리미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책 당국은 지상파방송사가 사용 중인 아날로그 주파수를 회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유 주파수의 확보는 지상파 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회수되는 주파수가 지상파방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술인이 사는 법

### 아리랑 국제방송 진병대

## 나눔은 서로를 유익하게 합니다

“선배님 상담할 것이 있는데요 시간 있으세요?”

후배에게서 걸려온 전화다. 회사에서 기독 신우회를 하다보니 여러 사람들과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가장 많은 고민의 내용들이 진로에 관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방송국에는 프리랜서와 계약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이 가까울수록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행히 어떤 직원은 더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 안타깝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직장 상사, 선배 사이의 갈등이다. 신입사원의 경우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상사가 허드렛일을 시킬 때인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게 입사한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잔심부름을 시킬 때 가장 힘들다고들 한다. 나 역시 신입사원 때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나는 커피심부름이나 청소 같은 잔심부름을 도리어 기쁘게 해주면 안되냐고 되묻는다. 그러면 “내가 이런거 할려고 입사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한다.

애기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마무리에 가서는 “성경에 보면 뒷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돼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커피 타주는 것이 당연하듯 같은 팀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상사(좋은

싫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므로)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 책상 뿐만 아니라 상사의 책상도 함께 닦아주는 것이 구별된 삶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이런 것은 사회에서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 결혼문제, 가정불화 등은 회사업무와 상관은 없지만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는 관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따로 없고 경험에 중요한데 나 역시 인생경험이 많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나 또한 멘토를 찾아가 의논하고 고민하여 같이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주조정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대기가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걱정하여 주는 친구가 된다는 것이 때마침 회사생활에서, 특히 엔지니어로서 기계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은 편인 나에게 활력소가 되고 회사 다니는 보람도 느끼게 된다.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지만 같은 종교 동아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에게서 위로를 얻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내 나이에 한 살이 더해진다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삶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든다.



##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 혜택

- '방송과 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전시회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3219-5635 팩스 : 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강희중 칼럼

## 본격화되는 망중립성 논의

‘누구든지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명제가 지난 12월 21일에서야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확인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 안을 승인한 것이다. 망중립성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들이 모든 웹을 동등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특정 웹을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지고 보면 망중립성은 매우 당연하다.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ee)는 1990년 웹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망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 이후 웹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이 같은 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이 있었기에 현재의 인터넷이 존재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이 산업화되면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졌다. ISP들이 등장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점점 인터넷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삼스레 망중립성이 등장한 것은 이들 ISP들의 통제 가능성을 ‘규제’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에서 망중립성이 논란이 확산된 것은 최대 케이블사업자인 컴캐스트가 지난 2008년 P2P 업체인 비트토렌트를 제한하면서부터다. 이에 FCC는 망중립성 원칙 훼손을 이유로 컴캐스트의 행동을 저지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ISP와 인터넷 업체들, 공화당과 민주당 등, 법원과 FCC 등의 갈등이 격화됐다.

컴캐스트, AT&T 등 미국 통신 사업자들이 P2P를 차단하는 명분은 대다수의 선량한 인터넷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부 ‘해비 다운로더’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해 일반 소

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룩한 명분 뒤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다. 인터넷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네트워크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이에 비해 추가 수익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용납이 됐다. ISP들은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개발해 더 비싼 값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일종의 반사 이익을 누린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인터넷전화(VoIP) 등 ISP들의 수익을 깎아 먹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부터 복잡해졌다. ISP들은 이들을 ‘무임승차’라고 하며 차단하려 했고 인터넷 업체들은 망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방어했다.

미국에서 망중립성은 올해 4월 한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다. 미국 항소법원이 ‘인터넷 과다 트래픽 유발자 차단을 중지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원고(컴캐스트) 승소 판결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FCC는 트래픽 차단 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동안 망중립성에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은 FCC의 망중립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FCC를 더욱 압박했다.

FCC는 ISP들을 정보서비스사업자가 아닌 막강한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통신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방법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그리고 지난 21일 줄리어스 제나초프크시 FCC의장이 제안한 망중립성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수년간의 논쟁을 거치면서 FCC의 망중립성안은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망중립성에 반대했던 측은 물론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 찬성했던 진영 모두 이번 FCC의 망중립성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번 FCC의 망중립성안은 투명성과 차단금지, 비차별성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투명성이란 ISP들이 인터넷 사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와 단말기 업체들에게 인터넷 성능과 요금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단금지에는 유무선 ISP들이 정당한 네트워크 관리 목적 이외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비차별성은 우선 광대역 인터넷 사업자가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망중립성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몇 가지 예외조항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비차별성 원칙에서 무선을 제외한 것이다. 이는 버라이즌 등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차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FC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버라이즌과 구글이 망중립성에서 무선을 제외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무선 ISP들에게 ‘네트워크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ISP들은 트래픽 과다 유발자를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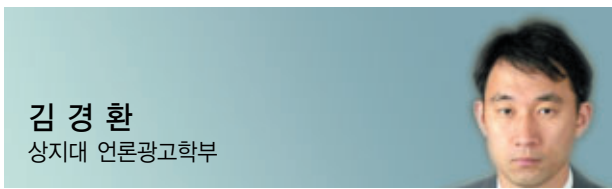
이번 FCC의 망중립성안은 사실상 인터넷 트래픽 제어를 주장했던 ISP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인정한 꼴이 됐다. 미국 망중립성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FCC의 판박이 정책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강희중  
디지털타임스 기자

[‘강희중 칼럼’은 다음 호부터 ‘문보경 칼럼’으로 개편됩니다.]

## 지상파 디지털 전환 정책과정의 평가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지상파 디지털 전환시점이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로 결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진, 강진, 단양의 3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기 2010년 9월, 10월, 11월에 디지털 방송으로 조기 전환하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준비단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의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다시 추진협의회 산하에 디지털방송 시청자지원센터를 둬으로써 디지털방송 시청자지원센터가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맡는 형태로 추진됐다.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3개 대상지역의 디지털 전환 인지율을 살펴보면 시범사업이 가장 늦게 시작된 단양을 제외하면 올진과 강진 모두 70% 전후의 인지율에서 머물렀다. 반면, 단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80% 중반의 인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역 주민의 디지털 전환 인지율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먼저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수개월간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의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의 홍보활동에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홍보활동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 전환 홍보활동의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해당 지역이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실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비율도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인지율에 비해 낮았다.

홍보수단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의 주요 인지방법이 지역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는 했지만, TV 뉴스 및 정부(지자체)홍보물,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지경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홍보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다만, 정부홍보물의 경우 시범사업 초기에 시범사업을 알리는 데 매우 효과가 높았던 반면, TV뉴스는 조사시점과 관계 없이 인지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라는 점이 파악됐다.

한편, 수신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역의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3개 시범사업 지역에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9개소에 중계기를 설치했다. 수신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해 디지털 컨버터 보급 대신 공청시설의 개선을 지원했다. 공청시설의 지원대상은 공동수신설비가 있는 공동주택이며, 지원내용은 공청시설 개선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했다.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의 실시예

따른 수신환경 개선 부문의 평가는 난시청 개선을 위한 중계기의 설치와 공청시설 개선과 같은 사업의 전개는 정책적 판단으로서는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시행에 있어 지상파방송사들의 협조 부족과 중계기 설비의 발주지연에 따른 설치 공사기간의 부족에 따른 중계기 운영의 불안정성 대두 등과 같은 문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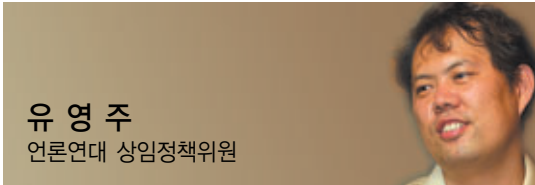
특히, 신규 디지털 난시청지역의 발생으로 아날로그 지상파 시청 때보다 디지털 전환 이후 시청 가능한 지상파 채널수가 감소하는 문제는 시청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해결 방안의 모색이 꼭 필요하다.

또한, 수신부문의 수신환경 개선의 경우 직접 수신 세대는 디지털 전환으로 컨버터의 설치와 더불어 기존의 아날로그 안테나를 디지털 안테나로 교체하거나 양호한 수신을 위해 부스터와 같은 장비의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청자 지원센터의 지원인력이 기술부족과 서비스 마인드의 부족으로 단순 컨버터 설치에 주력한 결과,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사례가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 수신환경개선 사업은 안테나 지원은 물론 관련 안테나선 및 부스터와 같은 부속장비까지 포함한 형태의 수신환경개선 사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청시설의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50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일괄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세대당 평균적인 비용을 산출하여 소요비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공청시설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 유도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 컨버터 또는 디지털 TV 구매 보조 중 선택적 지원도 실시했다. 먼저, 컨버터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 최소화를 고려하여 디지털 컨버터 1대를 무상 제공하고 디지털 TV 구매보조 비용으로서 디지털 TV가 고가인 점과 디지털 컨버터 비용(7~10만원) 등을 고려, 디지털 TV 구매비용의 10만원을 보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인과 같은 기술적 취약계층은 혼자서 컨버터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컨버터 설치 및 세팅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1대로 한정되어 있는 컨버터의 지원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일지라도 1대 이상의 TV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나머지 TV에 대해서도 컨버터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역에서 큰 민원이 발생하거나 디지털 전환 일정이 연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

## 내년에는 시민 90%가 공감하는 미디어 정책 대안 내놓자

미디어운동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디어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

시민의 자치와 직접행동으로

권력과 미디어에 참여하여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고,

권력에 대한 감시·통제의 계기를 확대해

미디어의 사회화를 이루는 일이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연초 2010년 정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는 가운데 통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 행정, 사법, 미디어에 대한 정권의 장악 정도가 탄탄한 데다, 2010년 국가 예산 집행을 통해 지지기반의 재생산이 가능하고, 거시적인 국정 전략을 구사할 계기가 많아 대중 동원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로영일’(一勞永逸 : 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오랫동안 안락을 누리다)을, 정운찬 총리는 ‘사에즉립’(事豫則立 :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을 제시했다. 총리가 바뀌긴 했지만, 정부는 우격다짐식 국정 운영으로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디어행동은 운동 방향과 과제를 일곱 가지로 정리했다. 열거하자면 △언론약법 원천무효 △수신료 현실화 능력저 대응을 통한 미디어 참여와 감시·통제 △지자체 선거 적극 개입으로 지역미디어운동 기반 확장 △저널리즘 실천 △대안콘텐츠 생산과 액세스△미디어 대안 법안 마련 △시민 행동의 정치적 리더십 형성 등이었다.

돌아보면 1년 동안 미디어운동은 첫째와 둘째 과제 대응에 집중했다. ‘언론약법 원천무효’ 실천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저지 내지 지체·지연시키는 싸움이였다. 작년 10월29일 현재 판결이 나자 연말

에 야당 의원 8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다. 이경자, 양문석 등 방송통신위원회 야당측 상임위원은 현재 결정 이후 종편 일정을 추진해야 하며 힘을 겨루었다. 미디어운동은 언론약법의 요체가 종편 도입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벌였다.

현재는 4(인용)-4(각하)-1(기각)으로 각하와 기각을 합해 5:4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와 종편사업자에게는 현재 행위에 정당성을, 피청구인인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게는 과거 행위에 정당성을, 청구인인 야당의원들에게는 미래 행위에 정당성을 각각 부여했다. 결국 방통위와 종편사업자들은 추진 일정에 들어갔고, 국회는 과거를 묻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 다만 야당은 이 결정을 근거로 훗날 어떤 형태로든 종편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

이 같은 결론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시민사회를 포함해 당대 우리 사회가 정치권력이 주도하는 정치기획을 제어·통제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과거에 위한·위법하였고, 현실에서 불법에 바탕을 둔 특혜 정책이 집행되는데, 의회(대의제)민주주의와 현존하는 어떤 국가기구도 이를 바로 잡거나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당운동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한계를 재생산하고 있고, (미디어)사회운동과 노조운동은 정당운동의 수평 또는 하위 연대 관계 속에 사태의 진실을 폭로하

고 선전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운동이 시민적 공분을 모음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정치기획에 커다란 흠집을 냈는데, 이 의의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해서는 미디어행동과 정당, 네티즌들로 구성된 ‘수신료 인상저지100일행동’과 ‘KBS수신료인상저지법국민행동’이 제각기 틀을 갖추고 대응했다. 수신료 대응은 11월19일 KBS이사회가 3,500원 인상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 결정으로 수신료 인상분의 광고시장 유출을 기대했던 조중동 등 종편예비사업자들은 경악했고, 수신료 인상의 최소 전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원도 인상할 수 없다는 수신료 주권자들도 크게 실망했다. 3,500원 인상안 결정은 종편사업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로부터 단 한 차례도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비판에 침묵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인상안 결정 주체는 KBS이사회라는 대의기구였지만, KBS이사회는 대의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논리에 좌우되었고, 3,500원 인상이라는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 물론 이처럼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내포한 3,500원 인상안 결정을 강제한 힘조차 시민사회로부터 나왔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다.

미디어운동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디어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 시민의 자치와 직접행동으로 권력과 미디어에 참여하여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고, 권력에 대한 감시·통제의 계기를 확대해 미디어의 사회화를 이루는 일이다.

종편과 수신료 대응으로 압축되었던 2010년 미디어운동이 이에 얼마나 부합했을까. 위한·위법 논란 속에 종편 추진이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정책 집행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했다는 점, 이 과정에서 종편 추진을 지체·지연시켰다는 점, 수신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공영방송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겠다. 이 운동을 함께 해온 사회운동과 노조운동, 네티즌운동이 상실감 대신 자신감을, 냉해감 대신 승리의 신념을 갖게 되었다면 더 욕심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해를 매듭하면서 내딛게 될 다음 발걸음은 무엇일까. 누구나 예상하듯이 올해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 정치기획에 누수도 많이 생기는 1년이 될 것이다. 2012년을 내다보면서 으깨지고 구부러진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미디어 정책대안을 정립하는 일이 우선이라는데 특별한 이견이 있을까 싶다. 미디어운동의 소중한 조각조각들이 잘 어울려서 시민 90%가 공감하는 품질 좋은 미디어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밀 환파를 건넌다.



# KOBA 2011

[www.kobashow.com](http://www.kobashow.com)

## ■ KOBA 2011 전시품목

- 방송관련기기
- IPTV, HD관련기기
- 송출관련기기
- 카메라 관련기기
- 중계관련기기
- 컨버터
- 무대장비, 케이블
- 음향관련기기
- 영상편집, 제작관련기기
- 통신, 네트워크관련기기
- 디스플레이(HD, LED)
- 송신관련장비
- 전기 및 배터리 관련기기
- 조명, LED관련기기

21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 제21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 2011. 6. 14 - 17 COEX

ufi  
Approved  
Event

지식경제부

HiSeoul

주 최 : 한국이앤엑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예정) :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KBS, MBC, SBS, EBS,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음향학회,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